

## 작은 꽃

## 주요 날짜:

- 3 월 2 일  
프라하의 성녀  
아네스 동정 기념
- 3 월 4 일  
Soup Kitchen 봉사
- 3 월 11 일  
성경모임
- 3 월 19 일  
한국 교회의 수호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 3 월 25 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월례회

## 다음쪽:

1 월 월례회  
성경모임  
한 걸음씩



##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 Will It Be Like Every Other Lent?

Mark Schroeder, 작은형제회

이번 사순 역시 예년의 사순과 같을까요? 한주간 아니면 최대 열흘간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 아침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나흘 후면 성경을 붙들고 앉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며 결국 '직장에 늦겠다'가 더 우선순위가 되고 맙니다.

이달 초 저는 폭우 중 8 번 고속도로를 따라 멋진 산악지역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개를 돌아섰을 때, 갑자기 웅장한 무지개의 아치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반원을 형성하는 그런 무지개였습니다. 저는 무지개를 볼 때면 구약과 신약을 아치처럼 연결하는 하느님의 약속이 생각합니다.

계속 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가 곧장 앞으로 뻗어 무지개 바로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무척 흥분되었습니다. 가까워짐에 따라 무지개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 "와!"하며 "한번도 무지개 바로 아래로 지나간 적이 없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가까워지면서 무지개의 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제 차의 앞이 무지개에 닿을 썸 - 훅!

무지개가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색도 없어졌습니다. 무지개에 대한 신비로움도 역시 함께 사라졌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무지개는 아래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The Wizard of Oz*(오즈의 마법사)에서 길 잃은 어린 소녀가 "무지개가 있는 그 어딘가..."하며 노래하였고, 지난 20 여년 동안 재속 프란치스코들은 'Catch Me a Rainbow'('프란치스코처럼'의 원재)라는 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시기에도 계속 무지개를 찾아 무지개를 잡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하기까지 무지개는 아래로 지나갈 수 없다는 점을 숙고해 볼 수 있는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 성경모임 - 미카, 스바니야, 나훔



딱 찬 교실

1 월 14 일에 있었던 성경모임을 어거스틴 형제가 정리하였습니다.

미카 예언자는 기원 전 720 년경 유다 남왕국 예언자로 사회정의를 외쳤으며 인기를 끌려는 예언자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들은 자기민족을 걱정하기보다 자기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데로 얘기하였다. 미카는 예언자의 역할은 죄상을 고발해야 하고 사회정의를 외쳐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카는 혼자였고 군중들로부터 인기가 없었으나 하느님은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해 줄 것을 믿었다.

나훔 예언자는 기원전 612 년 유다왕국 예언자로 첫 구절에서 분노하고 질투하는 하느님을 묘사하나 곧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를 묘사하여 현세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양면을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다.

스바니야는 기원전 640 년 경 유다왕국 요시아왕 시대에 예언자로 그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숭배, 마술과 점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님의 심판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 심판날이 오면 불신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불필요한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림으로써 하느님의 위대함을 입증하시고 인간의 모든 거만을 뭉게 버린다는 예언을 하였다.

##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ive  
San Diego, CA 92123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ghwan  
@yahoo.com

## 1 월 월례회



체험譚

올해 들어 첫 월례회가 1 월 28 일에 있었습니다. Mark 수사님께서 시편 148 장을 주제로 ‘기쁨’에 관한 나눔으로 우리 생활 속의 기쁨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쁨과 연결해 보는 시간을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수사님 말씀에 계속하여 2006 년 여름 예수회 봉사단체 JS Cambodia 에 합류하여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미셀 자매의 아들 민규 벤자민 군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실에 굴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지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봉사자의 용기,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섭리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잠시 다과와 친교를 가진 후 각 반별로 나누어 양성시간을 갖은 후 공지사항 발표와 저녁기도로 일과를 마쳤습니다.

## 성경모임 - 하바꾹, 요나, 예레미야

2 월 11 일 있었던 성경모임을 小 베로니카 자매가 정리하였습니다.

2007 년 새롭게 추가된 저의 결심은 성경모임에 충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강의실이

꽤 찬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 장으로 되어있는 하바꾹 예언서의 배경은 아시리아를 패방시킨 신흥 바빌론이 팔레스티나 전역을 장악하고 활동한 기원 전 600 년경입니다. 이 예언서에는 이스라엘이 절망과 고뇌 가운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충성하는 길 뿐임을 강조 합니다.

요나서는 종교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역사 서술적 성격을 띤 설화입니다. 주인공인 요나가 바닷 속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 일간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 나는 이야기로 요나의 인간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과 배타적인 사고 방식을 깨우치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느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인류 구원의 보편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627-587 년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로 치닫던 때 였습니다. 유대의 위상상배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부패와 악행이 극에 달했으며,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으나 유다는 신흥 바빌론 제국에 침략당하고 하류 계층만 남기고 모두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몸의 양식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역사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첫 동료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시작한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800 여년을 거치면서 생활 양식의 변화와 함께 명칭 또한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초기에는 **회개자들의 회**라 불리었는데, 도미니코 3 회와 구별을 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3 회**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3 회’의 개념은 ‘성 프란치스코의 구조를 받은 세 겹의 군대’(첼라노 1 생애 37)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3 세기 말 공동체를 이루어 엄격한 수도생활을 하는 3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수도 3 회’와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살려는 이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프란치스코 재속 3 회**라는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1957 년에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따라 ‘형제성’을 강조한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라는 명칭이 회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현 공식 명칭인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바오로 6 세께서 1978 년 새 회칙을 반포하신 사도적 서한 ‘세라핍적 사부’에서 사용된 명칭으로 ‘재속’이란 표현은 1,2 회와의 구별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3 회’라고 부르는데, 위의 역사적인 배경과 프란치스코 수도회 말고도 3 회가 있는 수도회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의 공식 명칭인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우리부터 바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